

韓國史上에 나타난 天災地變의 記錄

韓國外國語大學 朴 星 來

우리 歷史엔 수많은 天災地變의 기록이 있다. 日・月食, 地震, 가뭄, 홍수는 물론이고 해가 두개, 세개가 함께 떴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세상동이, 비쌍동이, 다섯쌍동이의 기록도 있고, 임탐이 수탐으로 변했다는 기록도 나온다. 이런 기록들이 「삼국사기」에 1천개, 「고려사」에 약 6천 5백개, 「조선왕조실록」(1392년부터 1530년까지만 원자가 수집완료)에 약 8천개 있다. 「實錄」의 조사를 완료하면 아마 전부 4만 개쯤의 기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중요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洪以變, 全相運 등 科學史學의 선배들에 의해 잘 지적이 돼 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자료로 쓰여지고 있기도 하다. 新星(Nova) 연구에 「高麗史」의 자료를 쓰고 있는 영국의 電波天文學者가 있는가 하면, 太陽활동의 周期를 연구하여 이를 벼농사의 결과와 비교해 본 학자도 있다. 近代의인 천문・기상관측기록이 1백년을 못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경우, 불완전하나마 이런 資料를 하루속히 정리하여 두면 天文學者나 氣象學者들의 참고가 될 것은 물론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科學者로서의 관심은 歷史家로서의 관심과는 크게 거리가 있는 것이다. 우선 歷史家의 관심은 왜 이런 기록이 正史 속에 그리도 많이 적혀 있을까 하는 데에 있다. 그것이 後世의 科學者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은 물론이고 보면, 天災地變이라는 史料의 同時代의 性格을 밝혀내는 것이 歷史家의 첫 과업이라 하겠다.

가뭄이나 홍수는 生活에 직접 위협이 되는 것이니까 중요한 사건으로 보아 歷史에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太白晝見이나 日暈 또는 枯木回生 같은 것이야 무슨 필요가 있다고 그리도 열심히 기록된 것일까? 이 의문에 대답을 구함은 우리 祖先들의 自然觀의 문제에 접해 보려는 歷史家의 노력이며, 이것은 즉 科學思想史의 큰 부문이 된다고 보여진다.

풍부한 天災地變기록은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中國, 日本 등 儒敎文化圈 나라들의 傳統歷史記述의 하나의 특징이다. 그러나 中國・日本歷史의 연구에 있어서도 그 迷信의(?) 또는 宗教의 이유 이외에는 天災地變 기록의 존재이유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다. 迷信의 또

는 說話的 측면에 대해서는 韓國古代史의 경우 그 存在가 인정은 되어 있다. 그러나 高麗 또는 朝鮮朝시대 의 역사에 있어서도 天災地變의 迷信의 해석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 南怡장군의 獄事(1468년) 사건은 彗星이 얼마나 큰 실질적 위협이었던가 하는 當時人들의 迷信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당시의 彗星過敏症과 南怡의 죽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고 믿는다. 예로부터 東洋에서는 彗星은 혁명의 前兆로 믿어져 왔기 때문에 愾星만 나타나면 爲政者는 특별경비물 게을리하지 않고 反逆을 꾀하는 쪽에서는 이왕이면 이때에 舉事하기를 바라게 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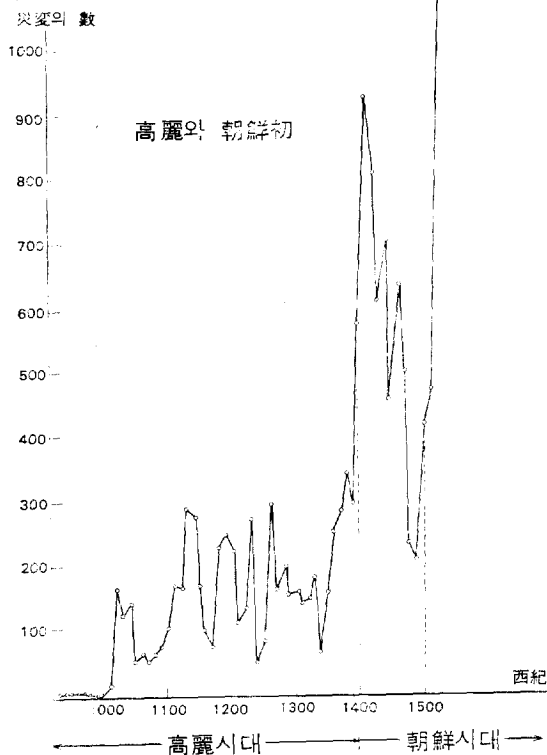
물째로는 政治的 이유를 들 수 있다. 中國 漢代의 天災地變을 연구한 W. Eberhard는 이 기록들은 歷史家들이 각 황제의 평가방법으로 造作도 서슴치 않음을 믿을 수 없는 기록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를 수정하여 H. Bielenstein은 天災地變 기록의 數字는 각 皇帝의 人氣度에 反比例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나마 이 방면 연구는 이 정도에서 그치고 漢代 이후의 수많은 中國기록도 우리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아직 수집분류조차 안돼 있는 것이 실정이다.

원자는 1530년까지의 韓國史에 기록된 天災地變을 컴퓨터분석해 보고, 그에 대한 反應들을 연구해 보았다. 자료가 극히 풍부한 朝鮮王朝實錄을 통한 1392~1519 사이의 연구에 의하면 第1要因인 迷信의 요소는 계속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第2의 政治的 要因의 경우, Eberhard나 Bielenstein의 漢代의 天災地變 연구 결과는 전혀 朝鮮王朝에 맞지 않음을 발견했다. 歷史家들이 없는 災變을 조작한 증거도 없고, 그 分布가 王의 人氣度에 반비례하지도 않았다. 災變기록의 分布는 각 王代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그 分布度만 가지고 이렇다 할 해석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分布가 각 王의 人氣度에 반비례 하기는 커녕 오히려 모반적이라는 王들의 경우에 보다 많은 災變 기록이 있는 경향이였다.

그러면 朝鮮初期에 계속되는 天災地變에 대한 관심은 어떤 각도에서 이해될 수 있을까? 첫째 政治的 要因을 들 수 있다. 中國 漢代나 마찬가지로 天象에 대한 관심은 첫째 그것이 地上의 政治의 反影이라는 이유 때문에 重視돼 왔고 이것은 아마 羅末 이후의 董仲舒儒學의 계속되는 영향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朱子學的 德治理想의 成長과 함께 災變은 점점 더 君主의 德이 부족할 때 나타난다는 해석이 지배적 관념으

로 성장한다. 그러므로 災變은 王의 求言과 臣下의 進言의 계기로서 가장 중요한 社會的(政治的)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災變기록의 頻度는 다름아닌 言論活動의 計數쯤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災變 기록의 원래 목적이 과학적 관측기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기록을 오늘날 科學者들이 사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歷史學的 配慮가 필요하다.



1. 資料

三國史記: 1,000個
高麗史: 6,500
實錄: 8,000 (1392~1510年間)

承政院日記: 仁祖 이후 實錄보다 상세

燃藜室記述: 1656個 (1392~1719年)

增補文獻備考: 三國史記, 高麗史기록은 그대로이나
朝鮮朝의 것은 아주 貧弱

朝鮮古代觀測記錄調查報告: 위와 거의 같음 (1917)

朝鮮의 災害 (1928):

2. 研究현황

A. 科學的 資料—— 활발히 進行되고 있음

太陽活動과 米作, 洪水의 周期, 新星, 流星雨 등등

B. 人類學的 관심—— 활발

迷信(?)의 또는 宗教的인 災變觀의 연구는 아직도 많이 연구할 여지가 있음. 歷史 연구에도 크게 도움될 것.

C. 災變은 政治思想의 표현이다——(董仲舒)

顧頤剛 등——古代 宰相 등 災變으로 免職

W. Ebrhard——史家들의 造作이다.

H. Bielenstein——當時 士大夫들의 人氣度 반영이다. 漢代의 災變 연구만 있고 그 후는 아직 未踏

3. A. 朝鮮朝의 災變기록: Eberhard, Bielenstein 모두 適當치 않음

① 造作흔적 없다: 承政院日記와 비교

자료 자체의 모순 비교

② 人氣度에 오히려 反比例하는 듯:

모범적 王代에 더 많은 기록

B. 災變기록은 言論活動에 비례한다.

〈王과 臣사이〉
〈臣과 臣사이〉 不調和가 있을 때 기록 증가

第15回「全國歷史學大會」

科學史部會

1977. 5. 28

麗初의 曆과 年號

韓國外國語大 朴 星 來

10세기에 高麗人들이 독자적인 年號를 사용했다는 것은 史家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太祖 王建은 麗朝의 창건과 함께 天授라는 年號를 채택했고(918년) 그 뒤 4代 光宗은 即位와 함께 光德이란 年號들(950), 그리고 그 11년에는 또 峻豐이란 年號를(960)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峻豐에 대해서는 그것이 高麗 독자의 年號냐, 아니면 避諱年號냐 하는 데에 異見도 없지 않았다. 또 妙淸(1135年)이나 李澄玉(1453) 같이 稱王建元을 피한 반란도 있었다.

그러나 麗初 이후 近代化의 물결 속에 1896년 建陽이라는 年號를 채택하기까지 거의 1천년간 우리나라 독자의 公年號는 사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독자적인 年號를 갖는다는 것은 自主獨立精神의 表現으로 받아들여져 우리 역사의 서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어 왔다. 그러나 麗初의 年號 사용은 과연 獨立정신의 表現이라고 보아서 좋을가?

年號란 기원전 140年 漢武帝의 “建元”으로부터 시작되어 中國에서는 같은 皇帝 在世中에도 여러차례 그 이름을 바꾸는 일이 많았다. 實用的인 면에서 볼 때 年號란 수백년 또는 그 이상 계속되는 歷史의 흐름을